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2009년 8월 25일(화요일)	담당	산업경제팀
		연락	강승진 연구위원 011-639-6391

농촌마을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인프라 개발, 마케팅사업 전개 등 다양한 아이템 발굴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농업·농촌체험장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제안
 -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의의를 주민 스스로 깨닫고 생활 속에서 문화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양적 요소보다 질적 요소에 중심을 둔 사업운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가치’에 주목하는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이 요구된다.
 - 이를 위해서는 농촌체험프로그램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농촌마을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마을 주민의 문화역량 제고, 농촌마을 문화인프라 개발, 농촌문화 마케팅사업 전개 등을 위한 다양한 아이템 발굴이 필요한 것이다.
 - 제주발전연구원은 정책과제 “제주지역 농업·농촌 체험장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은 농촌마을이 지니고 있는 어메니티 체험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등 소비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을 활성화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간 추진돼온 농촌체험프로그램의

주류가 관의 주도과 지원에 의지하여 시행되는 등 타율적 사업추진으로 농촌마을이 문화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한계점으로 작용해왔으며, 농외소득 증대 등 농촌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성과도 미미했다.

- 제주지역 농업·농촌 체험장 조성은 농촌의 내적 역량의 한계도 존재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논리만을 앞세워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려는 조급함이 오히려 사업의 진정한 결실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명확한 장기비전과 치밀한 추진계획을 세워 경제적 성과와 함께 농촌 문화공동체로 나아가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 농촌마을 주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민단체나 지역문화원 등과 연계한 농촌문화서포터 제도 운영, 문화콘텐츠 발굴 지원, 문화예술인 네트워킹 등이 요구된다.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촌문화마케팅 지원방안으로는 '농촌체험관광의 날' 제정, 농촌문화쿠폰 발행, 농촌문화행사 지원, 기업문화마케팅과 연계한 1사1촌 문화운동 확산 등의 추진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제주지역 어메니티자원 활용과 연계한 파생상품들의 판매·유통 및 홍보를 위한 광역적 지원체계의 강화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농촌체험관광상품이 농외소득 증대와 곧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또한, 제주지역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농촌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농업의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요구된다. 그리고 제주지역 농촌마을의 경관·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환경기준의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여 농촌체험관광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어야 한다.